

새로운 노트

2025.05.27 화 오후 9:31 · 30분 25초

이태수

참석자 1 00:00

가 꺼졌죠.

참석자 2 00:01

멘토 멘토 멘토님만 나가 주셨어요.

참석자 1 00:05

저어요. 저희 니스 그게 됐구나. 근데 다시 들어가더니 그만 이거 월산 거여 가지고 그러네.

남았네.

참석자 2 00:17

네네 저희가 이번 주 3주 금요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수집 데이터랑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설계 문서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 조회 프로그램을 코드 형식으로 제출을 하라고 하셨거든요.

참석자 1 00:32

이거 그냥 밀버스 어디요? 파인콘 파인콘 그거 넣고 그거 하는 거 말하는 거 같은데 그다음에 포스트 그레이 쪽도 있을 거고 그거 그냥 코드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

참석자 2 00:46

그래서 다른 팀 선행 기수분들 거는 보니까 그냥 그 데이터베이스 그냥 그 컬럼 같은 거 스키맨 같은 거 나오게 스크린샷 한 다음에 끝내더라고요.

그래서 그래요. 네. 근데 저희는 그 코드 형식으로 내라고 했으니까 코드로 할 거긴 한데

참석자 3 01:02

그것도 스크린샷도 하나 넣으세요. 포스트 만들어 놓은 거예요.

아예 그냥 v 제로 뭐냐 GI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긴 한데

참석자 1 01:12

파이콘도 있을걸요? GI 드는 거 그런 거 그냥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 밀버스도 원래 그런 게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더라고요.

참석자 2 01:24

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 이제 양식이 좀 이상해 이상해

참석자 2 01:44

여기 있다.

참석자 2 01:54

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데이터베이스 조회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나머지 두 개가 데이터베이스 설계 문서랑 그리고 데이터 수집 보고서인데

참석자 3 02:04

수집 보고서 쪽은 그렇다 쳐도 저희 데이터 설계

참석자 2 02:07

네. 데이터 설계 쪽이

참석자 3 02:09

엔터티 엔터티 있는 거

참석자 2 02:11

엔터티를 이것을 다 적어야 될지

참석자 1 02:14

이거는 사인 기술과 없었어요.

참석자 2 02:16

선행 기술부는 진짜 너무 간단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긴 해요.

근데 선행 기술 분들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.

참석자 1 02:24

근데 있는 그대로 그냥 내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있는 그대로 다

참석자 2 02:29

다 넣어서 강사님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적고 쳐낼 건 쳐내더라.

참석자 1 02:34

굳이 작아도 상관없고 네 이게 뭐 그리 엄청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단 뭐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

참석자 2 02:43

이거 제가 만든

참석자 1 02:44

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해라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엄청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.

그래서 선행 기술들이 했던 것만큼만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있는 그대로만 그냥 적어서 그냥 내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하기 싫으면 싹 모아가지고 GPT한테 적어달라고

참석자 3 03:02

다 채우면 한 3 페이지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

참석자 1 03:05

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

참석자 2 03:08

다른 기수 분들은 8 페이지 넘어가는 건

참석자 1 03:10

분들도 있긴 해가지고 그래요. 그럼 그렇게 하죠.

그럼 그냥 다 적으세요. 그게 나을 것 같아요.

참석자 2 03:15

데이터베이스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 데이터 수집 같은 거는 저희가 이걸 또 자세히 적으라고 돼 있긴 해요.

이게 양식이 수집 방법이랑 그거는 쉽잖아요. 다 사실 처럼 네 맞아요.

이렇게 다 해놓으면 되긴 하는데 다른 기수분 거를 보면은 한 장으로 끝나요.
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주제랑 데이터 출처 형태 그냥 이렇게 하고 잠깐만
요.
네네.

참석자 1 03:41
이게 몇 개고 있니?

참석자 4 03:44
아니 출처를 출처만 들어놓고 출처를 들어

참석자 2 03:47
출처만 달아놓고 그냥 밑에는 그냥 데이터 스크린샷 원본 스크린

참석자 1 03:50
이거보다는 좀 잘 적으면 좋겠다. 네 맞아요. 거기 여러 가지 어디서 들고 왔고
이런 것들이 있어

참석자 2 03:55
네네. 여기 양식

참석자 1 03:56
사람들 그냥 다운 받은 것 같은

참석자 2 03:57
그러니까 딱 그 틀이 정해져 있긴 하더라. 이 기수 분들은 근데 이 팀은 아 출처

가

참석자 3 04:05

수작업으로 한 것도 있고

참석자 2 04:06

네 맞아요. 자체 자체 생성 자체 생물이 있고

참석자 1 04:09

그런 것도 적어 놓으면 좋으니까 왜냐하면 싹 정리를 한번 해 놓는 건 좋아요.

나중에 포트폴리오 만들 때 그런 거 싹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 했다.

몇만 몇십 개 몇백 개 되는 링크 싹 다 크롤링했다. 많으면 몇십만 개라고도 할 수 있고 아무튼 나중에 그런 것들은 포트폴리오 적을 때 생각이 안 나요.

내가 뭐 했는지 그래서 그거 적어놓는 게 나아요. 그래서 한번 싹.

그래서 내가 다음에 봤을 때 이거 좀 제대로 적어놓을 걸 하는 부분이 있어요.

왜냐하면 내가 뭘 했는 걸 뭐 했는 거 많았는데 막상 적으려니까 세 줄 밖에 안 나오는 거야.

이것 좀 적은 거 많았지. 나 그때는 많이 했는데 뭐 했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.

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고 그냥 적어놓으세요. 일단

참석자 3 04:52

네 알겠습니다. 노션 MCP 연결해 놓고 바이브 코딩하다가 내가 여지껏 한 거죠.

왜 노션에 정리해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

참석자 1 04:59

그렇게 해도 되죠. 그거를 포트폴리오로 정리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날짜

별로 정리해 줘.

내가 이때 느꼈던 힘들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에러 많이 났을 때
이거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적어놔 줘.

이런 식으로

참석자 2 05:16

네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게 아까 전에 얘기한 코드 조회
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그리고 데이터 수집 보고서가 세
개긴

참석자 1 05:26

중간 발표가 어려

참석자 2 05:27

6월 13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. 네 금요일 네 그래서 저는 6월 10일까지는 일
단 pp 때 일단 초안이 완성이 무조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정을 짜긴 했
는데

참석자 3 05:37

한번 시연 용도로

참석자 2 05:38

그래 네네네.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모델 선택한 거랑 데이터

참석자 1 05:43

전처리 지금 엄청 많이 해놓으셨으니까 네 일단 시연은 데모로 따놓으세요.
영상으로 영상으로 영상으로 해놓으세요. 네 알겠습니다.

그리고 페이지는 아직 안 만들었죠.

참석자 2 05:54

피그마 말씀하시는 건가요?

참석자 1 05:57

아니요. 아니요. 그냥 UI

참석자 3 05:58

UI는 일단 그때 프린트 있던데 뽑아놨으면 뽑아놨어요.

뽑아놨다는 건가

참석자 2 06:05

초안 인원 님 화면 공유

참석자 1 06:08

왜냐하면 녹화할 때 UI에서 들어가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서 잠시만요.

그래야 좀 있어 보.

참석자 3 06:21

이거 버튼이 기업으로 돼 있긴 한데 이거는 이거 이거는 구 버전이구나 이거 이거 저번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거 말고

참석자 3 06:39

2cm 포크 된지 한 개가 이거는 일단은 메인에 뭐 넣을지 몰라가지고 각각 에이전트 그냥 간략한 설명

참석자 1 06:52

잘했네. 여기에 그냥 대략적으로 버튼 하나만 붙여가지고 랭그래프 작동하는 거 한 번만 보여주면

참석자 3 06:59

사내 로그인하는 척하는 거 있고 데모 보여주는 거 있는데 데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 어떻게 유형이 구성돼 있는지 이거 세션 눌렀을 때 이거 데모 질문들 같은 거 세시

참석자 1 07:14

지금은 각각의 에이전트로 들어갈 수 있겠는데

참석자 3 07:18

이거는 일단 이거는 초안이어 가지고 이 부분은 삭제할 거고

참석자 1 07:23

이것도 대놓고 여기 그냥 전체 이제트 다 해봐요. 그래서 만약에 각각으로 질문하고 싶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

참석자 3 07:30

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. 오토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만

참석자 1 07:34

좋다 좋다

참석자 3 07:37

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. 저희 비구멍

참석자 1 07:40

이건 뭘로 짰어요?

참석자 3 07:41

이거 그냥 v대로

참석자 2 07:43

보여드리는 저희 피그모 화면입니다.

참석자 3 07:45

LLM으로 넥스트 JS 프로젝트 만드는 거 어디에 붙였어요?

이거 이거요 어디에 붙였냐고 하시면은

참석자 1 07:53

이거 코드 이거 윈드 서

참석자 3 07:56

짜주는 거 아니에요? 아예 그냥 생으로 처음부터 프로젝트 구성 컴포넌트까지

참석자 1 08:03

네 이거 따로 짜야 돼요

참석자 3 08:07

짜야 된다는 거는

참석자 1 08:08

그 툴을 이용하신 거예요.

참석자 3 08:11

사이트 이거는 그냥 사이트 그냥 GPT 같은 거인데

참석자 1 08:16

거기서 프론트만 이런 식으로 짜주는 게

참석자 3 08:20

이게 풀 스택으로 짜주더라고요. 그 제가 일단은 풀 스택으로 하지 말고 장고 레스트 API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비워놓고 주석 처리로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어느 화면은 어느 API로 연결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

참석자 1 08:56

참치 피티도 대략 보니까 정리해줘 요약해줘 뭐 짜줘 이런 것들의 캔버스가 나올 것 같거든요.

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 그런 부분을 한번 분기를 만들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.

참석자 3 09:12

이게 지금 데모 짠 것도 지금 데모 질문을 입력을 하면은 각각 데모 질문에 맞는 캔버스가 옆에서 나오도록 일단 돼 있어요.

예 그 데모 질문 셋을 제가 잃어버려가지고

참석자 1 09:28

지금 그럼 캔버스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. 질문 셋이 없어서

참석자 3 09:32

네 지금 하나 대모 질문서에 저장돼 있는 거를 까봐야 될 것 같은데 업데이터
이쪽

참석자 3 09:48

다 치워야겠네. 다시 다 치워야겠네.

참석자 2 09:51

일단 그냥 다 채우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군요. 일단 최대한 자세한

참석자 3 09:56

물어봐야지. 데모

참석자 1 09:58

이번 주 토요일은 강남에서 그러면 강남은 지금 스터디 카페 말해 준 거 없죠
제가 여기보다 싼 게 있어요.

참석자 2 10:05

강남 강남이요 강남

참석자 4 10:07

여기가 비싼 걸까 거기가 싼 걸까

참석자 1 10:11

제가 했을 때 갔었는데 여기도 비싼 것 같진 않은데 여기보다 더 싸요.

참석자 4 10:16

강남이가 근데 그게 되나 고물 주가

참석자 4 10:26

정훈이한테 담배 한

참석자 3 10:29

아니 그때는 연금

참석자 5 10:48

아 이거

참석자 5 11:03

코드나스

참석자 6 11:06

eni

참석자 1 11:07

이번 주 그러면 시 잠깐만 몇 시였지 그러면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
12시거든요.

빨리 빠질 거 같아.

참석자 2 11:21

그러면 2시

참석자 4 11:22

좋지 않을까? 강남 쪽에서 하시는 가시는 거예요.

결혼식이 강남 이쪽이신 거예요. 서초 아까워 가지고 그럼 끝나고 끝나고 끝날
때쯤 바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한 3시

참석자 1 11:39

20 그 정도는 괜찮아

참석자 3 11:41

3시 3시간

참석자 2 11:43

캠프 이거 다른 캠퍼스가 서초던데

참석자 1 11:46

맞아 맞아요. 찾으니까 있더라고

참석자 4 11:50

다음 기수인가 다다음 기수인가 봐

참석자 2 11:51

17기부터 다시 저희 여기 독산으로 그전까지는 이 번갈아가면서 온 것 같아요.

이게 빌 때마다 그래요. 지금 14개는 서초구에 있죠.

참석자 4 12:04

14일 서초구에 있어

참석자 2 12:05

지금 얼마 어젠가 그제 들어온 게 15기 16기랑 17기는 지금 모집하고 있는

참석자 1 12:15

3번 12시네 3시쯤 빠르

참석자 3 12:24

그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

참석자 4 12:28

다들 오시는 데 얼마나 걸리

참석자 2 12:30

정 강남이면 30분 네 저도 금방 가요 1시간 전에 꿈을 좀 바로바로 네 저도 진짜로 1시간 전에만 알려주면 바로 갈 수 있게

참석자 4 12:39

좀 멀리 있으신 분들이 문제지 저는 1시간 전에만 말씀해 주셔도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서

참석자 1 12:46

일단 3시쯤으로 일단 3시쯤 잡고 일단 미리 1시간 전에 말씀해 드릴 수 있으면

말씀드리겠습니다.

그리고 다음 주는 그러면 일단 토요일 날 만나서 이야기할게요.

토요일 날 얘기하고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와야 될 것들이 잠시만요.

아까 정리해 놓은 것 좀 보여주실래요? 네 시간이 진짜 빠르네.

중간 발표가 거의 다 와가지고

참석자 3 13:20

피그만 보면 나오지 생각해봐. 그 생각을

참석자 3 13:36

시그널의 에이전트 상에

참석자 2 13:45

근데 그냥 진짜 멘토님 말씀해 주신 거 그냥 다 적어가지고 일단 여기서 해야 될 거를 뽑아내야 될 것 같긴 해요.

참석자 4 13:52

그거를 날짜 정해서 저희 모델로

참석자 5 13:55

저기 모델 정립 테스트해 볼까요?

참석자 2 13:59

이거 한번 해볼까요? 회의록 저희가 진짜로 저희 회의 녹음한 걸로 텍스트로 바꿔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좋더라고요.

그래가지고 어디 뭘로 했을 때요 여기 데이터의 회의록 저희가 회의한 내용을 회의록을 만들어 가지고 애를 에레담한테 그 회의록 내용 그 프롬프트에 맞게

맞춰가지고 그 답변을 요약해 해라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더라고 물론 주피터.

네

참석자 1 14:30

물론 노트북 LM 써봤어요. 노트북 LM 아세요?

참석자 3 14:34

어

참석자 1 14:34

아니 거기 대화 형식으로

참석자 2 14:38

노트북 네

참석자 1 14:40

네 영상 같은 거 하나 넣으면 회의록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 넣잖아요.

그럼 그걸 팟캐스트로 만들어줘요. 그러면 지하철을 다니면서 그냥 진행자가 있고 유튜브 같은 걸 막 서로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팟캐스트처럼 해주거든요.

그래서 회의록 요약을 팟캐스트 방식으로 요약해가지고 STT로 그냥 듣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재미있을 수도 있고

참석자 3 15:04

그 뭐냐 캔버스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 지금 피그마에 일단 스크린샷 찍어놓고

해놓은 게 있긴 한데

참석자 1 15:17

근데 생각해 보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게 무조건 캔버스는 아니잖아요.
그렇죠 그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바인드 해놓는 거 세팅을 쉬울 거고 지금
에이전트를 좀 정해보면 무조건 나올 개는 몇 개 있을 것 같거든요.
그거는 무조건 정해놓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.

참석자 3 15:33

이거는 뭐냐 보고서처럼 정리해가지고 문서 보여주는

참석자 1 15:40

리포트도 맞아 맞아 우리 리포트도 있으니까

참석자 3 15:42

이러스 고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

참석자 1 15:47

그럼 그렇게 하자 우리 그 툴들 중에 우리가 꼭 캔버스가 필요한 부분만 호출하
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

에이전트별로 캔버스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다 꼭 캔버스가 다 필요
한 건 아니잖아요.

그러니까 코드에서도 코드 분석해 주는 거나 컨버전 해 주는 건 필요할 수도 있
고

참석자 3 16:05

시나리오를 대충 프롬프트에다가 넣어놓으면 알아서 하시

참석자 1 16:10

그럴 수도 있는데 그 시 그게 또 프롬프트를 챗gpt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테스트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.

예를 들면 실제 이거를 서비스로 내버리면 난리가 나겠지만 캔버스가 말도 안 되게 나오겠지만 괜찮은데 이거는 그래서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.

어느 정도

참석자 3 16:31

아예 GPT처럼 캔버스를 체크하면 캔버스 2를 무조건 호출하는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아.

참석자 1 16:38

그것도 괜찮고 근데 그것도 괜찮겠다. 근데 진짜 한두 줄짜리 대답인데 캔버스를 체크해서 거기 나와버리면 그건 사용자 잘못 아닌가 그건 사용자 잘못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어디로 가냐면 프로덕트 팀한테 잘못 물어봐요.

너희가 왜 UI를 이렇게 짰냐

참석자 3 17:01

그러면 출력 리스펀스 값 검사해가지고

참석자 1 17:08

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.

체치 피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엄청난 이제 아마 거기에도 엄청난 하드 코딩이 많을 거예요.

참석자 2 17:21

코드 일정에서는 길게 대답하면 캔버스로 띄워주긴 하는 거

참석자 1 17:29

아무튼 그런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

참석자 2 17:42

그 게임 해야 될 거

참석자 1 17:53

중간 발표 때 심사위원분들 아직 안 잡혔죠

참석자 2 17:59

네 딱히 없어

참석자 3 18:00

심사위원들 들어오나 몰랐어요.

참석자 1 18:03

저 심사 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그걸 했었거든요.

참석자 3 18:08

저는 매니저님들이 하시는 줄

참석자 1 18:10

아니야. 아니 거기

참석자 3 18:12

기업분들 불러서

참석자 1 18:14

맞아요. 저랑 가끔 한 분씩 진짜 괜찮은 분 오세요.

그분 백핸드 쪽을 엄청 잘하시는 분 한 분 계세요. 야놀자 다니시는 분인데 그 분이랑 저랑 이제 그분 그분 심사 그분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듣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면 좀 의지가 없고 하기 싫은 사람이 들으면 좀 자존감 많이 깎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엄청 배울 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.

그런 평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번에 올지는 모르겠어요.

그분이 아마 임신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같이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전 기수 제가 어제 끝난 기수가 하나 있거든요.

어제 네 그 기수 심사위원들 보니까 네 그냥 기획자 대학원생 한 명 기획자 그 다음에 엔코어에서 일하는 개발자 한 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

그래서 심사평을 보니까 뭔가 좀 많이 그러니까 좋을 수는 있겠지만 뭔가 많이 얻어가실 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.

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비판해 주는 게 좋거든요.

참석자 1 19:28

신랄하게 왜냐하면 그런 게 다 공부할 거리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실제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엄청 고민을 한다는 거거든요

참석자 6 19:36

맞지 발표 발표 화이팅 가위바위보 파이팅 이걸 생각 못 했네

참석자 1 19:43

이건 몰랐네. 발표 그래 어떻게 하실 거예요?

참석자 2 19:46

보통은 다 제가 하긴 합니다. 네 근데 비즈 스틱 같은 거는 인호 님한테 마이크 넘겨드릴 수도 있긴 한데

참석자 1 19:52

너무 너무 다 나누면 좀 힘들고 딱 2명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.

참석자 3 19:59

스터디 합시다. 스터디 스터디

참석자 1 20:01

근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. 그냥 한 사람이 쪽 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해요.

그냥 내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처음에 너무 이런 것도 괜찮아요.

처음에 너무 잘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버려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와서 약간 기술적으로 좀 낮아버리면 기대감이 이걸로 탁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.

저희가 1조라서

참석자 1 20:29

일단 알겠습니다. 일단 중간 발표도 아직 얼마 안 남았습니다.

2주 남았죠.

참석자 2 20:36

2주 좀 안 근데 2주 살짝 좀 넘게 가는 것 같아. 13일이니까

참석자 3 20:42

안 되니까

참석자 1 20:43

이제 절개 무지

참석자 2 20:45

2주 살짝 넘게 나갔어. 네 2주 살짝 넘게 나갔어요.

참석자 4 20:49

그래서 토요일까지 뭘 해야 되는지 정리

참석자 2 20:55

뭘야 대신 적어주세요. 갑자기 멘탈이 드는 것 같아

참석자 1 21:03

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한 번 이거 이거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여주세요.

해야 되는 거 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해보시고 톨

참석자 2 21:16

대충 하는 구현해놓기. 네 일단 톨 구현이랑 그리고 스터디는 일단 저희는 아침에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

참석자 1 21:25

지금은 완전 가면 그냥 구현 시간밖에 없는 거죠.

참석자 2 21:29

강의 아예 안 해요.

참석자 3 21:30

그러니까 쪽 이렇게 하고 강사님도 가끔 질문하고 지금 강사님은 개발을 한 저
번 주 목요일부터는 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발 시작한

참석자 2 21:43

팀이 팀이 안 커

참석자 3 21:44

진짜요? 지금 저희 팀밖에 안 보여요. 뭐예요? 다른 팀은 뭐예요?

데이터 데이터 조사랑 기획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.

참석자 1 21:51

기획이 잘 안 맞구나.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주제가 좋기도 했고 제 관
심사이기도 해요.

근데 이게 예를 들면 저 이전 팀이 AI 모의 면접 이런 거 었거든요.

그건 없지 않을까 저희 후보에 있는데 없는 AI 메리 문제가 진짜 어려워요.

왜 어렵냐면 첫 번째로는 데이터가 없어요. 맞아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이게
평가를 해주면 GPT가 평가를 하잖아요.

그러면 면접이 아니거든요. 그냥 내 기술을 검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끊임
없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제기를 하는 거죠.

참석자 3 22:30

데이터셋 AI 홈부에 있던 것 같은데

참석자 1 22:33

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실제 예를 들면 내가 내가 만약에 실제 이 지원자

라면 어떤 걸 만들고 싶냐 처음에 딱 사이트에 들어갔어.
그러면 모의 면접 보기 회사마다 있는 거예요. 애를 토스 눌렀어요.
그럼 토스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공고가 떠 있는 거예요.
그거 누르면 거기에 대한 모든 면적을 볼 수 있는 거야.
그럼 그 데이터가

참석자 4 22:52
어디 있을 거냐고 벌써

참석자 2 22:53
그게 그 박람회 갔을 때 있긴 하더라고요. 그런 걸 구현을 하신 그 기업이

참석자 1 22:58
그래요. 네 그것도 한번 까봐야 되는

참석자 3 22:59
네 맞아요. 맞아요. 네

참석자 1 23:01
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제일 잘 만든 게 사람인 쪽에서
도 좀 잘 만든 게 있고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좀 핫하지가 않거
든요.
그러니까

참석자 3 23:11
뭐냐 머신러닝 같은 거 정하는 거는 가장 쉬워 보이긴 하더라고요.
오히려 어떤 거요? 모의 면접 쪽은 어차피 머신 러닝을 꼭 하나 써야 된다면 비

전 쪽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거의 시선이나

참석자 1 23:26

사실 면접 볼 때 시선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it 개발자들은 좀 달라요.

그러니까 it 쪽의 면접이면 그냥 답 잘하는 게 끝이에요.

막 시선이 불안정하고 이런 것보다 그 답 잘하고 그냥 그냥 하자 없는 인격 이거면 상관이 없거든요.

그리고 몇 마디 하면 보여요. 아 애 진짜 잘한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.

그래서 뭐 그게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또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문과 쪽으로 이제 모이면 데이터를 만든다.

그럼 더 힘들어지는 거죠. 이제 같은 내용이 다 근데 그거를 챗gpt가 판단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

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건데 그래서 실제로 하려면 그 회사에 가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들한테 실제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정도 데이터면 될까 하면서 자꾸 또 검증을 해야 돼요.

참석자 1 24:15

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들고 뭐 해도 이거 이러지 않아요.

이거 이거 버리지 않아요. 여러분 할 말이 없네. 그래서 그런 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사실이 기획을 잘하려면 좀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개발자보다 이제 기획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이랑 하면 좀 좋아요.

근데 개발자분들이 이제 기획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고 저는 뭐 스타트업을 해봐서 그런 거니까.

근데 그렇게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기획보다는 이제 개발단에 더 관심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

참석자 1 24:52

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보고 계세요.

참석자 3 24:57

네

참석자 1 24:58

그거를 보면서 잡 디스크립션이나 이런 것들 보면서 지금 저 회사 가고 싶었는데 이거 보니까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여기서 이 역량을 해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해보면 그 면접에 바로 넣어버릴 수가 있거든. 그때 할 말이 생기면 근데 그때 가가지고 막 찾잖아요.

나 이거 안 해봤는데 이거 그때 해볼걸 그때 이거 막 정우 님이 다 했는데 전화해서 물어볼까요?

이거 이렇게 했는데 전화해서 물어볼까 이래 됐는데도요.

그러니까 지금 자꾸 잡 디스크립션을 자꾸 보고 링크딘이나 사람이거나 여러 가지 보면서 한번 봐보세요.

자꾸 애가 끊임없이 리서치를 해야 돼. 회사는 좀 고르신 게 있어요.

아직 이호 님도 없어요. 예 없어요. 아직 없어요.

몇 개를 좀 추려가지고 물론 면접은 다 볼 건데 그래도 가고 싶은 회사의 스텝 위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한번 해보세요.

참석자 1 26:10

뭐 다른 질문 없을까요? 한 4분 남았는데

참석자 2 26:13

캠프 두 개 듣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런 부트 캠프 2개 듣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시원 끝나고 하지 않아요 끝나고 바로

참석자 3 26:20

지원 못 받지 않아요

참석자 1 26:21

듣는 사람들 있던데 그 사람 어떻게 들은 거지? 기억

참석자 2 26:25

기업은행 거나 그런 거 안 들어가는 게 있어

참석자 4 26:30

서울 새싹도 있고

참석자 1 26:32

공짜긴 공짜인데 돈은 안 준다.

참석자 4 26:34

네 서울 서울 사는 사람들은 새싹이라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

참석자 1 26:40

b 두 개 잡는 거

참석자 1 26:45

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나쁜진 않은데 자꾸 이력서 넣어보면서 듣는 게 좋아.

참석자 2 26:51

네 맞아요. 네 다들 그냥

참석자 1 26:53

한 번 들었어. 근데 그러면 이런 건 있지 우리가 불필 하나 더 신청을 하면 강사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.

이 다음 강사 시간은 이제 좀 쉬울 거잖아요. 그때는 자꾸 이제 면접 아

참석자 2 27:04

사피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 네 제가 알기로는 사피 같은 1년짜리

참석자 3 27:11

달에 100만 원씩 받을 수 있고

참석자 1 27:13

100만 원이요. 예 카피 삼성에서 하는 삼성전자 네이버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거여서 코디에스 보고 근데 부트캠프 있어봤자 그 이자가 안 봐요.

아무리 이름이 있어도 옛날에 딱 한 개 있었어요. 네이버 스쿨이라고 있었어요.

네 맞아요. 네 그거 네이버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서 옛날에 학원을 만들었어요.

진짜 학원에 거기가 1기가 2기가 끝이에요.

참석자 2 27:38

들어봤는데 나

참석자 1 27:39

네이버에서 원래 엄청나게 큰 꿈을 품고 만든 건데 그때 제가 아시는 분 저보다

많이 어린 친구인데 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 바로 자퇴하고 그 학원을 갔어요.
대학에서 배울 게 없어서 좀 약간 천재과거거든요. 그래서 대원이 너무 배울 게
없다 면서 바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건 모르고 코딩만 1등을 한 거예요.
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 원래 끝나면 바로 연계가 돼요.
네이버나 이런 데 근데 다니고 끝나자마자 망한 거예요.
이 사업이 실패다 해가지고 끝나버린 거예요. 끝나가지고 애는 갈 데가 없어진
거야.
그래서 그냥 지원을 했는데 네이버 라인 두 개 다 붙은 거예요.
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라인을 먼저 붙고 네이버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 라
인은 붙은 지 몰랐대요.
근데 거기서 이제 네이버는 이제 같이 볼 수 있거든요.
그래서 라인 붙으셨네요.

참석자 1 28:26

이러니까 자기는 아직 듣지도 않았는데 근데 거기서 네 그분이 그래가지고 아
무튼 라인을 가가지고 가자마자 한 10년 차 시니어들 각 개박사 약간 이 사람은
아키텍처 쪽으로 하신 분인데 어떻게 박살 냈냐면 시니어 분들이 와가지고 뭐
하면 바로 자기 그냥 깃 까면서 코드 짠 거 보세요.
내가 코드 다 짰는데 뭐 하셨어요? 막 이러면서 할 말도 없는 거예요.
근데 이 공적을 다른 시니어들이 가로챈 거예요. 개빱 쳐가지고 그냥 토스로 가
버린 거예요.
그때 이제 연봉 2배 받고 그래서 그때 한 2021년도에 한 연봉 1억 5천 찍고 보
려고 하거든요.

참석자 2 29:04

천재다 소설로만 들어가는데

참석자 1 29:08

그런 사람들 많아요. 실제로

참석자 4 29:15

추가로 못 나오겠다

참석자 3 29:17

그러면서 추가 요금 나오고

참석자 2 29:18

나가지죠.

참석자 1 29:20

이게 10분까지 되지

참석자 2 29:22

15분인가 10분 넘어가면 이제

참석자 1 29:25

사진을 2분에 찍어서

참석자 1 29:29

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. 좀 이렇게 그냥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지만

참석자 2 29:34

분 단위로 체크

참석자 1 29:36

그래 이렇게 하더라고. 하여튼 정리는 하세요.

참석자 3 29:39

네네네. 나라에서 하는 거라

참석자 1 29:41

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되게 깜 안 간간하게 먹고 돈이 세니까 사용자 그만
아

참석자 3 29:58

문제는 내일 노트북 너무 고생 많아

참석자 2 30:01

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.

참석자 1 30:03

하겠습니다.

참석자 3 30:19

토요일 3시에 예약하는 거예요.

참석자 1 30:23

일단 네

참석자 3 30:24

네 일단.

clovanote.naver.com